



로마의 휴일  
사랑과 영혼  
타이타닉 속  
**LOVE**

이이남·호퍼 '크리스마스 밤에'

**광주신세계갤러리 내년 1월 23일까지 이이남 초청  
에드워드 호퍼·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등 재해석**

갤러리에 소복히 눈이 내린다. 푸근한 눈이 쌓인 대나무숲 사이로 또 다시 눈이 흩날리고, 잠시 뒤 파리의 에펠탑이며 일본의 이웃집 토도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모습을 드러낸다. 프로젝트 빔을 이용해 8m가 넘는 대형 화면에 쏟아지는 풍경들이다. 작품 제목은 마그리트의 그림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에서 착안한 미디어 아트 작품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5분 30초)

광주신세계갤러리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를 초청해 내년 1월 23일까지 진행되는 'Season's Greetings with LOVE'전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점에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생각하는 전시다.

동서양 명화를 디지털 매체로 재해석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 온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르네 마그리트, 에드워드 호퍼,

로이 리히텐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풀어내며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에드워드 호퍼의 대표작 '밤을 새우는 사람들'(Nighthawks)에서 모티브를 얻은 '크리스마스 밤에'(4분 30초)는 흥미롭다. 원작에는 주인과 함께 무언가 사연을 가진 듯한 3명의 남자가 등장한다. 이 작가의 작품에선 주인이 홀로 있는 카페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였다 헤어지고, 추적 추적 비내리는 바깥 풍경과 대비되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따뜻함을 전한다. 여기에 마지막 손님으로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고, 두 사람의 따뜻한 대화에서는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또 다른 TV속 영상에서는 만화를 회화로 도입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팝 아티스트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속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로마의 휴일', '사랑과 영



이이남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부분)

혼', '타이타닉', '로미오와 줄리엣' 등 사랑을 주제로 한 고전영화의 명대사를 인용, 말풍선을 통해 재구성한 시리즈다.

최근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이슈가 된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구세주의 왼쪽 손에 들린 유리구슬에 비친 현대인들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

게 만든다.

그밖에 다양한 색감의 하트를 구성된 미디어 아트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관람시간 월~목 오전 10시30분~오후 8시, 금~일 오전 10시30분~오후 8시, 매일 도슨트가 전시 설명을 해준다. 문의 062-360-16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밀, 이루마 선율과 함께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2017년 월드투어콘서트를 마무리하고 광주를 찾는다.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뉴욕 카네기홀 매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2년 연속 전석 매진 등 미국, 호주, 아시아를 잇는 월드투어를 통해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자리매김한 이루마가 겨울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며 단독콘서트로 팬

들을 찾는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Frame'이다. '내 창가에서 보이는 풍경' 같은 그의 곡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하나의 그림을 상상하고 그 이미지를 음악에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곡을 만들어 왔다. 이제 그가 음악을 쓰고 연주하고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의 마음속 프레임에 담아두었던 느낌들을 이번 공연에 담아 무대 위

에서 팬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번 공연은 새롭게 발매되는 이루마의 10번째 정규앨범 'Frame'에 담긴 신곡 'Framed'와 '짧은 이야기 하나-A Short Story 1'을 처음 소개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지난 5월 디지털 싱글로 발표했다던 'flower'도 함께 연주될 예정이다.

또, 그의 대표곡 'River Flows In You', 'Kiss The Rain', 'Indigo' 등도 새로운 느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VIP석 9만9000원, R석 7만7000원, S석 5만5000원. 문의 1588-076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읽을까, 볼까**

이목회 회원전 28일~내년 1월 1일 무등갤러리



박익정 작 '정심(澄心)'

그림읽까, 글씨읽까. 현대 서예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제19회 담현서실 이목회(以墨會·회장 박익정) 회원전이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목회'는 1983년 서예원을 연 담현(湛軒) 전명옥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의 모임으로 당초 신융회(神融會)라는 이름으로 창립했다 이듬해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했다. 회원들은 1987년 남도예술회관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첫 전시회를 연 이후 매년 회원전을 열고 있다.

'읽을까 볼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개성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현대 서예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윤동주의 시 '서시'의 한 구절이 새롭게 탄생하고, '꿈'이라는 글씨는 붉은 꽃과 어우러져 또 다른 느낌을 준다.

곽영주·김문태·김삼순·유경숙·전영진·정만위·정문현씨 등 모두 19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담현 선생도 찬조출품했다. 초대 일시는 28일 오후 5시 30분. 문의 062-225-53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풍경에 남긴 흔적**

최미영 개인전 내일~내년 1월 10일 양림미술관



'나는 지난날을 향해 우네'

최미영 작가 개인전이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광주 시 남구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감성을 기록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최 작가는 인간과 사물에 깃든 사연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지는 이 과정을 담은 작품을 전시한다. 지나는 기억 속 풍경과 사물, 인물 등의 외형에 숨겨진 시간의 흐름, 생생, 소멸, 공간의 정보들을 기록하며 기억이 남긴 흔적과 잔상을 그린 작품들이다.

그가 만난 풍경과 인물들, 장소에서 몸에 새긴 공기와 바람, 생각들은 그의 화폭에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금까지 4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단원미술대전, 전라남도미술대전, 구상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했다.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기 입주 작가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607-23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